

Update on Ig A Nephropathy Treatment

Hyung-Jong Kim

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, College of Medicine, Pochon CHA University

IgA 신증은 사구체내에 **immunoglobulin A**의 미만성 사구체간질 침윤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임상적으로 무증상 현미경적 혈뇨에서부터 급속진행성 사구체신염 까지 다양한 증상을 보인다. **IgA** 신증은 신조직 검사로 진단을 받게 되는데 보통 **10- 20**대에 진단 받은 경우가 많으며 남자에서 호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특히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일차성 사구체 질환 중 흔하게 관찰되며 신조직 검사로 진단 받은 모든 사구체 질환 중 **30- 40%**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비록 **IgA** 신증이 비교적 예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 신조직 검사로 진단 받은 모든 **IgA** 신증 환자의 **1- 2%**가 매년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하여 투석치료를 받게 된다. 이러한 **IgA** 신증에 의한 신기능 악화를 막기 위해 여러 치료가 시도되어 왔으며, 현재까지 제시된 **IgA** 신증에 대한 치료는 **blood pressure control** 및 **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, angiotensin receptor blocker, corticosteroids, cyclophosphamide, mycophenolate, fish oil**을 사용하여 신기능 악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단백뇨의 감소 및 신기능 악화 방지를 유도하는 것이다. 현재까지 **IgA** 신증의 병태생리가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신기능 악화의 위험인자를 가진 환자에서 다양한 약물 투여 치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는 **IgA** 신증에 대한 치료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.